

대학·지역·세계가 화합으로 상생하자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13일 오후 4시 삼성문화회관에서 대학과 지역, 세계가 화합하는 축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역대 총장, 국내외 주요 대학 총장단 등 주요 인사, 유학생 지역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학 위상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종일 열렸다.

식전행사와 기념식 축하공연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30분 개교 70주년을 알리는 대규모 기념행렬로 시작됐다.

기념행렬은 본부에서 시작돼 분수대, 박물관 앞과 구성문 앞을 지나 공감터길, 정문, 삼성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돼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70주년을 알리는 시간이 됐다.

기념식 시작 전인 오후 3시 30분 삼성문화회관 앞은 전북대 농생대 원예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개교 70주년 축하 화훼장식 제막식이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는 전북대 개교 70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 등이 담긴 개교 7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과 개식선언으로 본 기념식 행사가 막을 열었다.

공식 기념식에서는 행사에서는 김



지난 13일 전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연 가운데 전·현직 총장들이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축포를 터트리며 자축하고 있다.

재민 교학부총장이 70년간 전북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이남호 총장의 70주년 기념사와 함께 수많은 내·외빈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금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모험인제 양성과

특성화 학문분야 육성, 가장 한국적인 캠퍼, 명품 불레길 조성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개교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1947년 10월 15일 이리 농과대학 설립인가를 받고 전주 명륜대학교 군산대학관이 하나가 되어 호남·충청권 최초 국립 고등교

육기관으로 첫 발을 내디딘 우리대학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전대인의 길을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구성원들의 열정, 동문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전라북도 교육특구 포럼 개최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서... 마을과 학교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모색

2017 전라북도 교육특구 포럼이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주제로 16일 오후 1시부터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린다.

이 포럼에는 전북교육가족과 학부모, 시민단체, 자치단체장, 의원 등 8백여명이 참석 마을과 학교를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각 지역의 공동체들의 홍보부스가 운영되며 공식행사는 2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등 3년제 혁신특구를 운영해온 지역의 운영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100분 동안 3개 세션별 주제 및 토론이 진행되는데 각 세션별로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이하는 교육 정책',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후 30분 간 세션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6시 포럼을 마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교육특구는 그동안 지역과 교육이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 왔다"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역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귀중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해은기자

학생이 중심 되는 수업 혁신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4일 2017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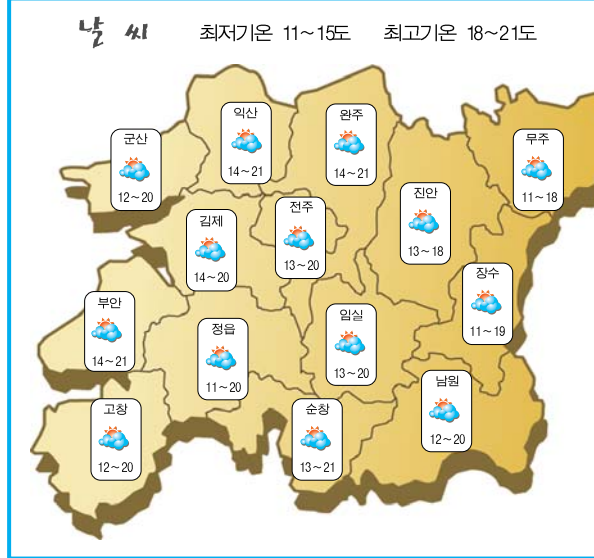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 성찰과 성장경험을 나눠 교사의 내적동기를 회복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혁신을 위해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을 14일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독일 빈터후대학교 괴팅겐 학교 교사와 나누는 수업 이야기, 초·중·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사례도 나온다. 수석교사들의 수업 열기도 있다.

/정해은기자

10월 16일 월요일 해돋이 06:39 | 해질 18:00 | 달출 22:47 | 달정 10:39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 27개 과목 334명 선발

도교육청, 전년비 100명 많아... 사립도 3개 법인서 5명 선발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3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과목 및 선발인원은 국어 20명, 수학 25명, 영어 14명, 체육 21명, 보건 28명, 전문상담 22명, 영양 57명, 특수(중등) 32명 등 총 27개 과목 334명이다.

이는 전년도(27개 과목 234명)에 비해 1백명 증가한 규모로 이중에는 도서·벽지 구분 선발인원 8명, 장애인 구분 선발인원 21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한 내년도 사립 중등교사 선발과목 및 선발인원은 학교법인 덕암학원이 체육 1명, 동국학원(급상고, 급상중) 영어 1명,

일반사회 1명, 송파학원(고창남중) 영어 1명, 음악 1명 등 4개 과목 5명이며 1차 시험에 한해 실시하고 이후 전형은 학교법인 일정으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공·사립 모두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1차 시험(교육학 전공)은 11월 25일에 실시한다.

공립 중등교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최종시험인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8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 실기평가를 실시하며 1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도교육청

도서·벽지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1인 1스포츠클럽 활성화로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25개 도서·벽지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도교육청은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25개 학교에 총 2000만원을 지원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초등 도서·벽지학교 20개 학교에 1600만원을, 중등 도서·벽지 4개 학교에 32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1개 학교 도서·벽지학교에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내 도서·벽지 초·중·고교 등 11개 학교가 있으며 벽지학교는 완주 동상초교 등 14개 학교가 있다.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전라북도 교육특구 포럼

2017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2017. 10. 16. (월)

| 13:00~18:00 |

오펠리스 웨딩홀

- ▶ Session 1.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 ▶ Session 2.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이하는 고등학교 정책
- ▶ Session 3.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